

월요광장

거짓말 공화국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인류 역사의 발전에서 ‘공화국’이라는 단어처럼 혁명성을 지닌 말은 찾아내기 힘들다. 멀리 가지 않고 동양으로 쫓혀 보더라도 수천 년 동안 왕조 전제국가이던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왕조국가에서 공화국이라는 혁명적인 나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 해방의 찬란한 빛이자 중국이 혁명되던, 확실한 역사의 대장정이었다.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나라 이름에 붙여지면서 압제와 탄압의 사슬에 매여 있던 중국인들은 새로운 천지를 밟을 수 있는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1910년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1919년 민족 독립운동의 거대한 물결에 힘입어 그해 4월 13일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공화국으로 출범하였으니 왕조국가에

서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셈이었다. 반만년 역사로 보면, 공화국의 이름을 얻어 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더라는 설명을 더 요하지 않는다. 공화국 앞에 ‘민주’라는 두 글자가 더해져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해 오기까지 이제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된 이래로 ‘민주’라는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오욕이 덧씌워졌으며 ‘민주’라는 글자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숨겨지고 감춰지면서 우리 국민은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던가.

친일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애국자나 독립투사들이 설 자리가 없이 탄압만 받아야 했던 자유당 치하의 ‘친일공화국’, 민주공화국의 이름을 부활시키려던 장면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무너져 ‘쿠데타 공화국’으로 또 얼마나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공화국’은 우리를 얼마나 비탄에 빠지게 했던가. 군화탈이 인권과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던 5공화국과 6공화국은 공화국 이름을 달고 전제 국가보다 더 혹독한 독재국가로 자리매김했으니 ‘민주’는 또 얼마나 더럽힘을 받았던가. 21세기에 들어왔으나 부정과 부패로 찌

든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으로 ‘부패 공화국’이자 ‘뇌물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벗어나지 못했음은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특징 또한 ‘민주’를 붙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데 딱 맞았은 말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세 글자이니, 두 정부 모두 ‘거짓말 공화국’임에 한 치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요즘 탄핵정국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터져 나오는 ‘거짓말’을 접하다 보면, 이렇게 거짓말로만 유지되는 공화국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위대한 거짓말을 눈으로 말짱하게 바라보고, 귀로 역력히 듣고 싶다면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실행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대목을 접하면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얼굴이라도 붉히고, 입에 침이라도 발라야 거짓말이 가능한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고 태연 자약하게 진실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에게는 본디 수직심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

거짓말의 극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대로 연출해 주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던 김 실장의 그 찬란한 거짓말을 기억해 보자, 블랙리스트 문제로 그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히 바라보면서 답변하던 거짓말의 연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는가. 미얀마 대사로써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특검에서 증거를 제시하자 최순실의 면접을 보고 추천을 받아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진실을 말하는 작태를 보면, 그들의 인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궁극하다. ‘뽕꾸리지’라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거짓말이 백 일하에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 연일 밝혀지는 거짓말에 그의 감옥행도 가까워짐이 느껴진다.

거짓말, 참으로 훌륭한 방법이다. 한순간에 통할 수 있고 몇 사람쯤이야 금방 속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고 뭇사람을 속일 방법은 없다. 지위가 높고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능통하니, 도대체 이 나라가 거짓말 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참다운 민주공화국이 너무나 그리울 뿐이다.

법조칼럼

판사의 아내와 기자의 남편이 대화하는 법



안경록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

정국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무심코 내가 내던진 “요즘은 언론도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라는 말 때문이다. 당황한 나는 화제를 급히 다른 데로 돌리면서도, 한쪽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고민한다. 그리고는 곧 내가 아내와 사회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지켜온 두 가지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어법상의 실수 중 하나이다. 무엇인가가 ‘다르다’고 해야 할 상황에서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 그 정도의 어법상 오류는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관한 경우에만 그러이 허용되는 것이지 ‘의견’이나 ‘당위’에 관한 경우에는 다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누군가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과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은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실이 얼마나 될까를 자문하다 나온 것이었고, 아내는 아마도 누군가의 전언이나 정황이라도 신뢰하 마하고 개연성이 높다면 보도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나는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염두에

두었는데 아내는 언론기관의 사실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더 무겁게 생각한 것이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커다란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물론 ‘틀린 것’을 단순히 ‘다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비겁하다. 그러나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틀린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서로 너무도 ‘다름’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근거를 내세울 때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정권 확득을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특정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에서 찬반론자들(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제기론자는 제외)의 공통된 근거는 ‘사법부의 독립’이었다. 판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법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신이야말로 ‘서민’이자 ‘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민주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회적 약자의 배려’ 모두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과 ‘기준’이다. 앞선 아내와의 대화에서 나는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말을 해야 했다. 그것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을 것이다. 총론(總論)과 각론(各論)은 우열이나 선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각론을 고찰하지 않고 총론만을 논하는 경우 결론이 도출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정당한 세균 없이 이익만을 취하려는 장사꾼들이나 이에 기대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틀림’을 찾아내는 것. 그 첫걸음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판사의 아내와 기자의 남편, 즉 우리 부부가 사회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는 법이다. 아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기자의 펜을 빌려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취재원’과 ‘취재원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밝히려는 기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듯하다. 법정에서도 ‘판사의 판결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려는 판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생긴다.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법은 결국 이러한 긴장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다르지 않다.

기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아픔을 줄이기 위해



이세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신을 돌아보며 아이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다짐할 것이다.

“왕장님, 쓸데없이 굳기 잡지 않아서 참 좋아요.”

자신을 한껏 드러낼 수련활동마저, 질서와 굳기 잡기에 연연한 수련활동을 경험해 온 아이들은 우리원에서의 체험을 즐겨워한다.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하는 활동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해병대식 교육은 오히려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 안전의식을 강요하기보다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교관들이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그 필요성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아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천천히 바다와 가까워져야 만이 온몸으로 안전을 위한 반응을 느끼게 된다.

세월호의 아픔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와 만연된 모순을 그대로 드러냈다. 단 순하게 한 두 가지의 원인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해양안전교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선생님들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들과 질서 있게 바다로 뛰어 들었다면 어땠을까? 평소 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훈련과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구명조끼만 제대로 착용하고 친구들끼

리 서로 도와 생존수영을 하면서 구조선을 기다렸다면 우리 가슴에 이리도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찌된 아이들은 서로 평생 곱잡게 여기고 살아갈 큰 힘이 되었을 것을.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바다는 언제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하는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힘도,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조차도 등한시되고 있다. 평소 애 바다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평소 애 준비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느끼며, 바다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적응시키며 자신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위험에 처하면 동료와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 물론 짧은 기간에 충분한 기량을 연마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물에 빠져 구조가 필요하면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플라 스틱 병이나 옷 등 무엇이든 줄로 묶어 서 잘 던지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작년

우리원에서 생존수영 활동을 하여 보니,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재미있게 잘 참여하고 아주 좋았다고 감사하였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 활동을 구성하여야할 것은 우리의 몫이자 과제이다.

인공지능과 환경변화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기에는 직업과 생활 여건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여건에 처하더라도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작은 실패와 그것을 이겨내는 수많은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는 여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몰입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주변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생존수영처럼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믿고 도울 때, 모두가 산다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동안 혼자 잘나가기 위한 공부에만 치중했던 자신에 대해 체험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표문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수군만호로 근무하시며 해상훈련을 했던 곳이다. 그분의 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 되어 자신과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두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탄핵열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오늘(6일) 60일째가 된다. 헌재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지 딱 두 달이 된 것이다. 원래 탄핵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으로만 보면 3분의 1의 시간이 지난 셈이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과 맞물린 국정 혼란과 표류를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 오는 2월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선고가 거론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지난달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이날 2일까지 총 10차례의 심리가 열렸으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를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등 16명이 증인대에 섰다. 국회는 최씨 등 대통령 비선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주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전히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특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면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지연작전을 펴고 있으며 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언급한 ‘전원 사퇴’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를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 여파로 영광굴비 옛 영광 사라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 이후 처음 맞은 지난 설 기간 동안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났다. 선물 한도 5만 원 규정이 급감하는 등 명절 특수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영광군 범성포 굴비거리리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포가 최근 영광 범성포 굴비거리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던 굴비거리리는 설 대목 장사가 끝난 탓도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문을 닫는 가게가 눈에 많이 띄었다.

영광군과 상인들에 따르면 이번 설 굴비 선물 세트의 판매량은 5075t, 판매 금액은 780억 원으로 지난해 설에 비해 판매량은 35%, 판매 금액은 420억 원으로 감소했다. 굴비거리리의 경우 지난해 1만9520t(판매액 3000억 원)이 팔려 2015년(1만7600t·3500억 원)에

비해 14%나 줄었다. 하지만 올 설 연휴에는 2배 이상 판매량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5만 원 이상의 선물 세트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참조치 어획량 감소도 매출 감소의 한 원인이다. 해양수산부의 2016년 연근해 누적 어획량을 보면, 지난해 참조치는 4122t이 잡혀 지난 2015년에 비해 4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496곳이었던 굴비거리리의 가게는 지난해 465개로 31곳(6%)이나 줄었다.

최저 임금의 굴비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마칠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적용 가능 사항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소비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민 권익위원회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김영란법 예외 품목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일본을 다녀왔다. 지방에 사는 탓에 출국 때마다 쥐는 불편이지만, 새벽에 일어나 광주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나 고속버스로 공항에 온 이들도 있었다. 이동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KTX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전철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결국 서너 시간은 축히 걸린다. 그러나 지방에서 여행객들은 마치 숙명인 양 ‘서너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여행 마지막 날 생겼다. 일본에서 귀국하기 위해 삿포로 공항으로 출

발할 즈음, 폭설로 항공기 도착이 지연돼 인천행 이륙이 늦어진다는 문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왔다. 항공편 지연 예고에 곧바로 출국 전 예매했던 광주행 KTX 티켓을 취소했다. 대신 새벽 고속버스 막차를 인터넷으로 예매했다. 비행기 지연이 길어지면서 애초보다 3시간여 늦은 밤에사이아룩했다.

물론 예매했던 고속버스도 또다시 취소했다. 승무원들은 항공기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승객 편의를 위해 긴급 버스를 배치했다고 알려 왔다. 착륙 후 짐을

찾고 나니 새벽 1시30분이었다. 아시아 항공은 20여 대의 버스를 새벽 2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토록 배차했다. 그러나 호남과 영남 등 지방 승객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KTX는 끊어졌고, 고속버스 막차(새벽 2시)를 타기에도 시간상 불가능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탓에 일행 1명과 함께 43만 원을 주고, 새벽 2시 리무진 택시를 타고 4시간 걸려 광주에 내려왔다.

대다수 지방 승객들은 공항 로비 의자에 눕거나 앉은 채로 밤을 샜다. 기상 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항공사가 서울 지역만 버스를 운행할 것이 아니라 호남과 영남 방면으로 1대씩 운행했으면 어땠을까. 지방 운행 전례가 없거나 비용 문제라면, 새벽 첫 KTX나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공항~KTX역, 터미널’ 임시서비스라도 운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 이념을 내건 글로벌 항공사, 아시아항공에 전하는 조그만 바람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